



DESIGN

KIDS VINTAGE

아이들을 위한 가구와 장난감에도 오리지널 빈티지가 있다.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 가구 숍 인엔이 뉴욕 키즈 빈티지 갤러리 겸 디자인 스튜디오 킨더 모던과 함께 <플레이 그라운드> 전시를 연다. 희귀한 키즈 빈티지 레어템과 세계가 주목하는 디자이너들의 컨템퍼러리 가구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EDITOR LEE DA HYEON

가구계의 레어템, 키즈 빈티지 컬렉션

아이들을 위해 디자인된 체어, 스톨, 거울, 문구류 등 오리지널 빈티지 키즈 아이템들은 가구계에서도 쉽게 보지 못하는 '희귀템'들이다. 국내에서는 더욱 생소한 키즈 빈티지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가구 숍 인엔에서 열린다. 뉴욕의 키즈 빈티지 갤러리 겸 디자인 스튜디오인 킨더 모던과 함께 키즈 빈티지 및 컨템퍼러리 가구들을 소개하는 <플레이 그라운드(Play Ground)> 전시다. 장 루이 아브릴(Jean Louis Avril), 알브레히트 랑에 앤 한스 미츨라프(Albrecht Lange and Hans Mitzlaff), 버나드 홀드어웨이(Bernard Holdaway) 등 1960년대부터 1990년대를 아우르는 디자이너들의 희소성 있는 아이템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키즈 빈티지 제품 외에도 윈터체크 팩토리(Wintercheck Factory), 피서르&메이바르

트(Visser&Meijwaard), 사리트 샨이 헤이(Sarit Shani Hay), 길로밋(Guillaumit) 등 최근 국제적으로 호평받는 디자이너들의 가구 및 오브젝트 컬렉션도 만나볼 수 있다. 킨더 모던의 제품 외에도 인엔과 꾸준히 협업 중인 이광호 작가의 스톨과 키즈 라이프스타일 숍 짐블랑의 다양한 가구와 소품, 일러스트레이터 김참새의 귀여운 일러스트 등 국내 작가 및 브랜드의 키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매장 1층에는 어린이 서점 '박쥐'의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키즈 가구와 소품들, 그림, 책, 작품 등 아이를 위한 풍부한 콘텐츠로 가득차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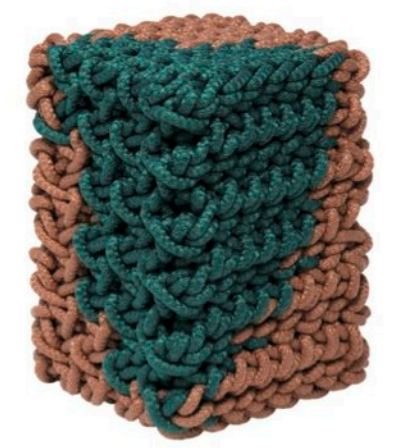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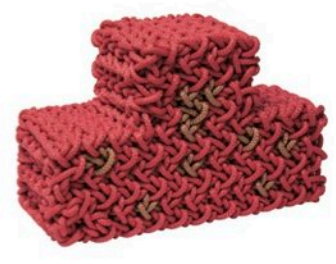
<플레이 그라운드> 전
TIME 2018년 4월 23일-5월 31일
ADD 인엔 창단동 소품(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47)
W www.innen.co.kr @innen_seoul



ILLUSTRATION



PLAY GROUND KIDS COLLECTION



Obsession Series

나일론 코드 소재를 이용해 고임 방식으로 제작하는 옵세션 시리즈의 키즈용 스톨. 컬러풀한 색상과 독특한 소재로 만든 스톨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한다. 이광호 작가 작품



Chicken Desk

아이들이 서서 작업할 수 있는 높이를 배려하여 디자인된 드로잉 테이블. 머리 부분에는 연필을 꽂을 수 있다. 길로밋(Guillau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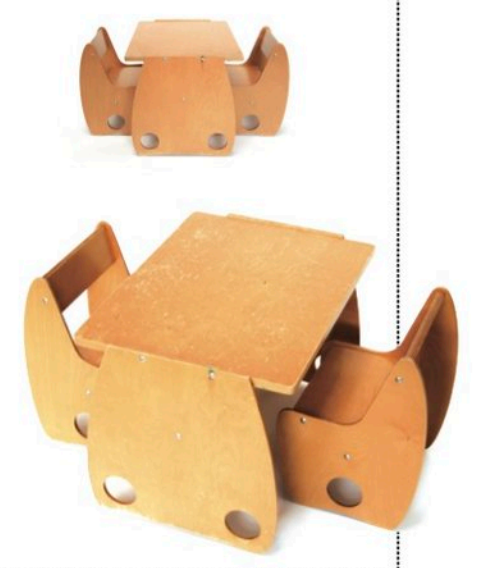
Kids Desk & Chair

1967년 프랑스 디자이너 장 루이 아브릴의 디자인 선명한 비건디 색상이 눈에 띄는 빈티지 키즈 책상과 의자 세트. 장 루이 아브릴(Jean Louis Avril)



Ussr Play Set

1960년대 러시아 디자이너 알브레히트 랑에와 한스 미츨라프가 디자인한 자적나무 합판으로 제작된 아이용 책상 세트. 알브레히트 랑에&한스 미츨라프(Albrecht Lange and Hans Mitzlaff)



Elephant Chair & Table

아이들에게 친근한 동물인 코끼리의 외관이 아이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의자와 테이블. 질 좋은 유럽산 너도밤나무 소재에 무광택 래커로 마감하여 높은 품질로 완성했다. 예르메스, 까르띠에 등 명품 브랜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디자이너 마크 베넷(Marc Venot)이 디자인을 맡았다. 엘리펀츠 옵티멀 by 짐블랑



Modular Rug

킨더 모던에서 2014년부터 론칭한 리그 컬렉션 100% 뉴질랜드 울로 제작한 수공예품으로 다채로운 색상과 아름다운 기하학적인 패턴이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모듈러 리그의 경우 헥사곤(Hexagon), 다이아몬드(Diamond), 트라이앵글(Triangle) 형태의 모듈로 자신만의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 있다.
킨더 모던(Kinder Modern)



Knight Stool

말의 꼬리와 같은 PVC 소재의 꼬리 디테일이 재미 있는 스톨.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디자인 스튜디오 윈터체크 팩토리는 색다른 소재를 혼합해 산업용 오브젝트를 조각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곳이다. 윈터체크 팩토리(Wintercheck Factory)



Truecolors Side Cabinet

산업용 PVC 천과 진통적인 캠핑용 옷장, 체육관 장비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트루컬러(Truecolor) 시리즈. PVC 천, 오크나무, 고무 등 예상치 못한 재료를 조합해 독특하고 미니멀한 느낌을 자아내는 캐비닛이다. 스티븐 피셔&베라 메이바르트(Steven Visser&Vera Meijwaard)



Crocodile Beanbag

페이브 레더를 사용해 만든 역동적인 악어 모양의 빈백. 기발한 발상을 통해 늘 새로운 디자인을 탄생시키는 이스라엘 디자이너 사리트 샨니 헤이는 늘 그녀만의 고유한 세상을 재창조한다. 사리트 샨니 헤이(Sarit Shani H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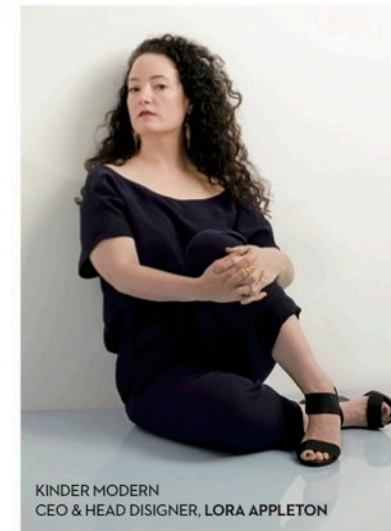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킨더 모던은 특유의 감각으로 키즈 빈티지 제품과 가능성 있는 신예 디자이너의 작품을 발굴해 소개하는 컨템퍼러리 & 빈티지 디자인 갤러리 겸 스튜디오다. 브루클린 박물관과 유명한 개인 컬렉션에서 수집한 역사적이고 컨템퍼러리한 작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킨더 모던은 초창기부터 완성도 높은 디자인의 키즈 가구 및 오브제 등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 예술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주거 공간은 물론 호텔, 공공시설, 교육 시설 등 상업 공간에 놓일 가구, 오브젝트, 리그 등의 감각적인 컬렉션을 큐레이션하는 것은 물론 직접 생산하는 등 수준 높은 키즈 디자인 작품을 널리 알리는 일에 매진해오고 있다. 또한 킨더 모던이 소개하는 역사적인 빈티지 및 컨템퍼러리 작품뿐 아니라 오더메이드의 다양한 제품은 전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신예 디자이너들을 끊임없이 발굴

하고 소통해 나간 협업의 결과물이다. 킨더 모던이 사랑하는 키즈 디자인 작품의 공통점은 창의성과 구조성, 장인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 재미있는 키즈 전시 역시 킨더 모던만의 특화된 콘텐츠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물리적 연결을 탐구하고 20세기 키즈 가구를 재해석한 '펄스 마이애미 비치 2016(Pulse Miami Beach 2016)', 게임보드로 맞춘 기하학적 카펫 위에 세계 각국의 유명한 신진 가구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체스 체어를 선보인 전시 '사이트 언신 오프사이트 2016(Sight Unseen Offsite 2016)' 등 색다른 기획으로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는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킨더 모던이 올봄 한국에 온다. 가구 숍 인엔과 함께 한국에서 여는 <플레이 그라운드> 전시를 통해 희귀한 키즈 빈티지 컬렉션을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Interview

킨더 모던의 설립자이자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는 킨더 모던 스튜디오의 수석 디자이너 로라 애플튼을 만났다. 그녀는 2017년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여성디자인협의회를 설립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에서의 사려 깊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훌륭한 디자인=똑똑하고 행복한 아이들" 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뮤즈는 바로 맨해튼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들들이다. <밀크>와 함께한 로라 애플튼 미니 인터뷰.



KINDER MODERN CEO & HEAD DESIGNER, LORA APPLETON

제품 선택 기준이 있다면? 아이를 위한 제품은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해야 해요. 구조와 기능이 심플하면서도 위트 있고 소재의 의의성을 갖춘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가장 아끼는 작품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킨더 모던의 사내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킨더의 루나 테이블(Lunar Table)과 이클립스 체어(Eclipse Chair)예요. 모듈형의 게임 세트로 집, 학교,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템이에요. 테이블을 더해서 합치면 O와 S를 형성하는데 미적으로도 역동성을 더해줍니다. 발트해의 자작나무 합판으로 만들어 단단한 내구성과 시크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것이 매력이에요.

로라와 킨더 모던 스튜디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밀크> 코리아 독자 여러분. 킨더 모던 스튜디오의 로라 애플튼입니다. 킨더 모던은 2013년 빈티지 키즈 디자인 갤러리로 시작했고 그 후 컨템퍼러리 키즈 디자인을 추가했으며 현재는 자체 디자인 스튜디오로 확장했습니다. 킨더 모던 작업의 기초는 역사적인 키즈 디자인과 키즈 디자인 분야의 발달에 관한 것이예요. 정교한 가구는 오직 어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필요해요. 현재 킨더 모던은 자체적인 디자인의 리그를 포함해 집 안과 상업적인 공간을 포함하는 모든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첫 전시를 축하드립니다. 어떤 계기로 개최하게 되었나요? 인연의 제안으로 함께 열게 된 이번 한국 전시는 아시아 최초의 전시이기도 해 우리에게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감각적인 한국 구매자들에게 독창적이고 역사적인 키즈 빈티지 가구와 키즈 컨템퍼러리 디자인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요. 이번 전시의 관전 포인트는 글로벌에서 주목받는 키즈 가구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는 재미와 의외의 소재가 주는 세련되고 유행한 멋을 즐기는 것입니다. 프랑스 디자이너 길로밋이 디자인한 치킨 데스크, 이스라엘 디자이너 사리트 샨니 헤이의 멋진 거대한 악어 빈백은 실용적인 기능과 놀이를 결합한 좋은 예죠.

킨더 모던이 제안하는 가구는 모두 창의적이고 감각적이에요. 로라만의

아이 공간을 잘 꾸미고 싶은 한국 부모들에게 인테리어 팁을 주세요. 늘 곁에 두고 사용하는 가구라는 사물은 실용적인 쓰임새 그 이상의 기능이 있어요. 사물이지만 가족과 함께하고, 추억을 공유하며 교감할 수 있죠. 아이 주변에 퀄리티 좋고 히스토리를 가진 디자인의 고급 가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가구를 보고 자란 아이는 어릴 때부터 물건의 가치와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이러한 질 좋은 가구들은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사용하고, 또 자녀에게 물려주는 등 유년 시절과 가족의 스토리를 담은 특별한 가보로도 남길 수 있어요. 사물이 곧 가족의 역사가 되는 순간이죠.

마지막으로 <밀크> 코리아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밀크>의 오래된 팬이에요! <밀크>가 제시하는 패밀리 라이프스타일, 키즈 제품과 브랜드를 사랑하죠. 한국의 젊은 엄마들은 특히 디자인과 아트워크에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을 방문해 흥미로운 디자이너와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네요. 곧 열리는 <플레이 그라운드> 전시에서 선보일 킨더 모던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PHOTO DAVID LEWIS TAYLOR